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황금숙(Gum-Sook Ho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국내 연구동향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도별 분석 |
| 2. 연구의 방법 | 2. 학문영역별 분석 |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3. 대상자별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4. 연구유형별 분석 |
| 1. 독서치료 개념 | IV. 요약 및 제언 |
| 2. 독서치료와 관련된 용어정의 | |

초 록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의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별, 연구유형별 등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독서치료 연구자에게 연구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주제어: 독서치료,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atabases(monograph, master's and doctor's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o analyze the citations and documents in various aspects(year, field, object, pattern). The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bibliotherapist and researcher and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ir study in the future.

Key Words: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gshoang@daelim.ac.kr)

• 접수일: 2005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삼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사회에 이어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 및 도전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불안감과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은 성 모델 붕괴와 폭력성을 야기시키고 있고, 경제구도의 조정에 따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식기반 사회는 과도한 교육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광고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에 따르면 헝가리, 일본, 핀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¹⁾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 TV 홈쇼핑 업체가 내놓은 이민 상품이 하루 평균 매출액 25억원의 1주일치 매출액인 1백75억원이나 됐다고 한다. 주문자의 62%가 한창 일할 20, 30대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꼽는 이민 동기를 보면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교육 질에 대한 실망, 부동산 가격, 정치적 실망 등 대부분 '우리 사회가 싫다' 것이다.²⁾ 한마디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반영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어떠한가? 아동·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의 장래가 밝은 것인데 최근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병들어가고 있다. 학원, 공부 등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자살한 초등학생, 왕따, 은따, 집따 등 친구관계를 통해 상처받고 정신과를 드나드는 아이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 문제로 아동·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중독, 가출, 자살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 절도, 살인 등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교육적 도전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무력감, 열등감, 우울증, 알코올/마약/쇼핑 중독, 적개심, 폭력성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활발

1) 중앙일보, 2004. 10. 12.

2) 중앙일보, 2003. 9. 3.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독서치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나아가 독서치료 연구자의 연구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 소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국회도서관내 국내 단행본목록 데이터베이스, 석·박사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국내 학술잡지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관련 서지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서지사항의 자료 내용을 실제 분석하였다. 또한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방법으로는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별, 연구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독서치료 연구 분야만을 국한한 것으로 독서치료와 유사한 시치료, 문학치료, 글쓰기치료, 이야기치료 등은 제외하였다. 즉, '독서치료'라는 키워드로 탐색했을 때, 이에 검색되는 결과물은 독서치료 범위로 간주하나, 별도로 '문학치료', '시치료' 등의 검색에서 히트되는 결과물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자료들은 2004년 12월까지 발행된 자료로만 국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같은 주제의 연구 내용이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에 수록된 경우가 있으나, 별개의 연구로 체크하였고, 단행본의 경우 저자의 학력이나 경력, 소속 등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수여 학과명이나 전공분야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학술잡지의 경우 수록잡지명의 성격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내 소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는 서지사항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서치료 개념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독서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BC 1300년 경 이집트 람세스 2세는 '테베'에 있던 자신의 궁전에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영혼의 치유장소(The Healing Place of the Soul)'라고 불렀다고 한다.³⁾ BC 3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위한 약(Medicine(Remedy) for the Soul)'이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⁴⁾

독서를 심리나 정서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며,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중반이후로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4년 Margaret, C. Hannigan의 '도서관과 비브리오테라피'를 유중희가 번역하여 국회도서관보에 실으면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⁵⁾

독서치료는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먼저 정신의학 관점에서는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서는 '독서치료는 신경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도서들을 선정하고 그 도서를 읽는 행위이다.'라고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다.⁶⁾ 또한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는 '독서치료란 정신의학과 심리학분야에서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읽기자료를 선정하고, 지시받은 대로 읽음으로써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며,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이고, 사회적인 긴장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⁷⁾

한편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Tews는 '독서치료란 치료자가 선정된 독서자료에 의하여 환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며, 독서치료 실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은 사서의 협조를 얻어 기술적으로 독서자료가 처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⁸⁾

병원이나 정신과 등 의학분야와 연계한 독서치료 영역은 학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확대·적용되어 나갔다. ALA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독서치료는 정신적, 정서적 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고 수행되는 직접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보조물로서 도서 자료와 다른 읽기 자료의 이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⁹⁾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독서치료란 「Dictionary of Education」에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책을 사용하며, 책은 독자의 성격을 측정하고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책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리고 선택된 독서자료에 내재된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Berry는 '독서치료란 시에서부터 단편소설, 자서전, 개인의 일기, 생활사

3) 정필모, 오동근, 도서관문화사(서울 : 구미무역출판사, 1991), p.26.

4) Ruth M. Tews, "Progress in Bibliotherapy,"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1(1970), p.173.

5) Margaret, C. Hannigan, 유중희 역, "도서관과 비브리오테라피," 국회도서관보, 제1권, 제3호(1964, 6), pp.133-139.

6)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Philadelphia : W.B. Saunders Co., 1941).

7)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 G.&C. Merriam Co., 1961).

8) Ruth M. Tews,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Bibliotherapy," *Library Trends*, Vol. 11(1962), p.98.

9) Young, Heartsill 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hicago : ALA, 1983).

10) C., Good, *Dictionary of Education*, (N.Y. : McGraw-Hill, 1966).

등등에 이르기까지의 가능한 모든 문학적 형태를 포함하는 문학작품들을 가지고 치료자와 참여자가 문학작품을 같이 이해하고 나누는 상호작용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¹¹⁾ 또한 상호작용을 강조한 Hynes와 Hynes-Berry는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서 훈련된 치료자는 임상적(clinical) 또는 발달적(developmental) 독서치료 참여자의 감정과 인지적 반응을 통합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선택된 문학작품-인쇄된 글, 시청각 자료, 참여자 자신의 창의적인 글쓰기 작품-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간다.'고 하였다.¹²⁾

이상에서와 같이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는 정신의학 분야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문헌정보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등 다소 강조하는 부분이 정신보건 측면이나, 독서자료 측면이나,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나, 상호작용 기술 등 상담 측면이나에 따라 약간의 정의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독서치료는 여러 학문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되는 등 학제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독서치료와 관련된 용어정의

현대사회는 '치료'라는 용어가 난무할 정도로 우리는 각종 치료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독서치료 외에도 시치료, 이야기치료, 문학치료, 영화(비디오)치료, 글쓰기치료, 드라마/연극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역할극치료, 동작/춤 치료, 향기치료, 색채치료 등 이러한 치료들은 처음에는 심리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치료 영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중 독서치료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치료(poetry therapy)는 문학작품 중에서 주로 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양식으로 쓰인 기존의 시를 임상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독서치료, 이야기 심리학, 은유, 이야기 하기, 글쓰기까지 포함한다.¹³⁾ 독서치료 보다 그 매체가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독서치료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대중적이다.

문학치료(literatherapy)는 문학, 즉 읽기와 쓰기를 통한 치료라 할 수 있다. 문학치료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영역으로, 심리학에서 문학을 치료나 내담자의 회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도한 경우는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변학수는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라는 말이 일반적인데, 굳이 문학치료란 말을 도입한 것은 독서치료가 수동적인인데 반해 문학치료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문학활동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⁴⁾

11) F. M., Berry, "Contemporary bibliotherapy : Systematizing the field.(1977)" In R. J. Rubin(Ed.), *Bibliotherapy Sourcebook*(AZ : Oryx Press, 1978).

12) A. M., Hynes, & Hynes-Berry, M.,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 St. Cloud(MN :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1994).

13) Nicholas Mazza, *Poetr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Taylor & Francis Books, Inc., 2003, 시치료 : 이론과 실제, 김현희 외 공역, (서울 : 학지사, 2005), p.12.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는 내담자와 치료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치료의 시작은 1990년대 초로 볼 수 있으나, 상담치료자들이 자신들을 ‘이야기치료사’로 명명하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글쓰기치료(journal therapy)는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반성적인 글쓰기를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슈들과 염려, 관심사, 갈등들과 혼돈에 초점을 맞추어 명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글쓰기치료는 저널 치료라고도 불리우며 표현예술 치료 쪽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그 외 책이라는 매개물 대신에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DVD 등 영상자료를 통한 영화/비디오치료(videotherapy)가 있다.

이러한 각종 치료를 Berry가 분류한 것을 기초로¹⁷⁾ 재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독서치료와 관련된 치료 구분

	수용적 양식	표현적 양식
문어(文語)	독서치료(biblio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문학치료(literatherapy)	글쓰기치료(journal therapy)
구어(口語)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영상(動作)	영화/비디오치료(videotherapy)	드라마/연극치료(drama therapy), 동작/춤치료(dance therapy)

Ⅲ.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별, 연구유형별 등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독서치료 연구자에게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도별 분석

국내 독서치료 연구는 단행본 23권, 학위논문 60편, 학술잡지기사 70편으로 총 153편으로 외국

14) 변학수, 문학치료(서울: 학지사, 2005), pp.93-94.

15) 엘리스 모건,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고미영 역(서울 : 청목출판사, 2003), p.18.

16) <<http://www.journaltherapy.com>>.

17) R. J. Rubin, *Using Bibliotherapy : a guide to therapy and practice*(London, Mansell, 1978), p.85.

의 독서치료 관련 연구에 비하면 그 수적으로 아직 미비하지만¹⁸⁾ 현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독서치료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1964년에 Hannigan의 '도서관과 비브리오세라피'를 유중희가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교육학 분야에서 1968년 김병수의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단행본으로는 손정표(1978)가 「독서지도방법론」에서 '독서요법'과 '비행청소년의 독서요법'이 소개되면서 독서치료가 독서교육의 한 부분으로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심의학연구소에서 「읽으면서 치유한다」가 간행되어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위논문으로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김태경(1984)이 '정신과 입원환자에 독서치료를 적용한 연구'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장귀녀(1985)가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독서치료에 대한 연도별, 문헌유형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문헌유형별 연구현황

연도별	문헌 유형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	계	%
			석사	박사			
1960년대	-	-	-	-	2	2	1.3
1970년대	1	-	-	-	8	9	5.9
1980년대	-	4	-	-	10	14	9.2
1990년대	3	4	4	-	8	19	12.4
2000	1	1	-	-	1	3	71.2
2001	3	3	-	-	4	10	
2002	2	5	-	-	6	13	
2003	6	21	-	-	15	42	
2004	7	18	-	-	16	41	
계		23	56	4	70	153	100.0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독서치료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 그 연구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2000년대(71.2%)는 그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3, 2004년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의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문헌유형별에서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 등 골고루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독서치료' 관련 ERIC (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1966-)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건수는 563건이며, LISA(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 : 1950-)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건수는 158건임.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1999-)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건수는 80건임.

2. 학문영역별 분석

독서치료는 문헌정보학, 유·아동학, 교육학, 심리학 등 그 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각 학문영역별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학문영역을 분석하였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의 학력이나 경력, 소속 등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수여 학과명이나 전공 분야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학술잡지 기사의 경우 수록잡지명의 성격과 저자의 전공 및 소속에 따라 학문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내 소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는 서지사항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수여 학과명과 교육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수여 전공에 따라 문헌정보학(사서교육, 독서교육전공 포함), 유·아동학(유아교육학, 아동가족학, 아동복지학), 교육학(초등교육, 청소년사회교육, 교육행정 전공 포함), 상담심리학(학교상담, 상담심리, 초등상담, 특수교육상담 전공 포함), 신학(원불교학, 신학), 문학(국어교육 전공 포함), 정신의학(의학, 간호학) 등으로 분류하여 학문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각 학문영역별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자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문영역별 연구현황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기사	계	%
		석사	박사			
문헌정보학	11	22	1	39	73	47.7
유·아동학	4	6	1	13	24	15.7
교육학	3	7	2	15	27	17.6
상담심리학	1	12	-	1	14	9.1
신학	-	5	-	-	5	3.3
문학	2	2	-	1	5	3.3
정신의학	2	2	-	1	5	3.3
계	23	56	4	70	153	100.0

<표 3>에서 같이 현재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47.7%)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교육학 분야(17.6%), 유아·아동학 분야(15.7%), 상담심리학 분야(9.2%) 순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 외 신학 분야에서 이연길(2004), 안기남(2003), 이재익(2003), 강종원(2001), 한홍렬(1996) 등이 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독서치료를 연구하였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임인숙(2003), 송영자(2002),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김태경(1984), 심의학연구소(1995), 민영숙(1999) 외에도 장귀녀(1985), 이종숙(1986), 이미경(1987) 등은 병원도서관 봉사의 한 영역으로 독서치료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강영숙(1992)과 이재현(2002)은 각각 사회사업학과 건축학 분야에서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별 분석

독서치료의 연구에 있어 대상자별 연구동향 분석은 <표 4>와 같이 유·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었으며, 성인의 경우 대학생, 주부, 노인, 직장인, 특수(성인아이, 암환자(가족), 정신질환자 등), 일반인(불특정 성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 유·아동에 대한 독서치료 연구가 57.6%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므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21.2%로 나타났다.

유·아동에 대한 독서치료 연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유·아동학과에서 꾸준히 독서치료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동시에 교육학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가 많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 주부는 3편, 노인 2편, 불특정 일반인 4편, 성인아이, 암환자, 등 특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이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심리학, 신학, 문학, 정신의학 분야 등에서도 좀 더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대상자별 연구현황

	유·아동	청소년	성인						계
			대학생	주부	노인	직장인	일반인	특수	
문헌정보학	17	9	4	1	2	-	2	3	12
유·아동학	21	-	-	-	-	-	-	-	-
교육학	11	4	-	1	-	-	-	-	1
상담심리학	5	5	1	-	-	-	-	-	1
신학	1	-	-	-	-	-	-	2	2
문학	2	2	-	-	-	-	1	-	1
정신의학	-	1	-	1	-	-	1	2	4
계	57	21	5	3	2	-	4	7	21
%	57.6	21.2	5.1	3	2	0	4	7.1	21.2

4. 연구유형별 분석

독서치료는 그 활동의 종류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발달적(developmental) 독서치료와 임상적(clinical) 독서치료로 구분된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의 과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읽기와 토론 활동 등 일반적인 인성 발달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임상적 독서치료는 정서적으로나 행동 면에서 심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즉 적극적인 개입의 형태로서 특별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치료이다. 19)

이런 취지에서 독서치료 연구를 이론적, 발달/예방적, 임상/치료적 차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유형별 연구동향

	이론적	발달/예방적	임상/치료적
문헌정보학	51	19	3
유·아동학	16	8	-
교육학	15	9	3
상담심리학	3	11	-
신학	2	3	0
문학	3	2	0
정신의학	3	-	2
계	94	52	8
%	60.8	34	5.2

<표 5>를 살펴보면 이론적 연구가 60.8%, 발달/예방적 연구가 34%, 임상/치료적 연구가 5.2%로 이론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서치료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는 초기적인 현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및 교육차원에서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많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까지는 독서치료의 개념을 소개하고 학문적인 관심에서 연구해 왔다면 이제 실제 도서관이나 학교, 상담소 등 현장에서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실험적 연구인 발달/예방적, 임상/치료적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하겠다.

<표 6>은 학위논문이나 학술잡지에 실린 발달 및 임상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정신문제 유형, 치료기간, 독서자료, 실제 구체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지도안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대상자별로 독서치료를 위한 정신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유·아동의 경우,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서치료 연구가 무려 11편이며, 그 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 아동에 대한 연구가 5편, 이혼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가 4편 등 똑같은 정신문제 유형에 대한 중복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등 자아에 관련된 연구가 9편으로 유사한 정신문제 유형에 대한 중복 연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복 연구의 현상은 참여자의 정신문제 유형 진단 시 이에 사용되는 검사측정도구가 다양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교육심리학자들과 임상학자들은 아동의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발달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오는 문제, 정신장애로 오는 문제 등 세 가지 측면

19) C. R., Lack, "Can Bibliotherapy go public?", In B. Doll & C.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7).

으로 분류하고 있고²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개념화, 범주화하기 위해 ‘청소년 호소문제’라는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²¹⁾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의 심리장애 분류²²⁾에서도 여러 정신문제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서치료연구학회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문제 유형을 ‘성취감’, ‘친구관계’, ‘일반가족’, ‘특수 및 위기가족’, ‘외모’, ‘신체장애’, ‘불안’, ‘두려움’, ‘죽음’, ‘경제’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독서자료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²³⁾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유 연구회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 ‘우울증’, ‘시설 중고생들의 마음의 상처’, ‘반사회성 성격장애자’ 등에 독서자료를 소개하고 있다.²⁴⁾

또한 이영애는 주부를 대상으로 ‘남편(자녀)의 정신질환’, ‘남편의 일중독’, ‘남편의 외도’, ‘성폭행을 당한 경우’, ‘이혼여성’, ‘남편의 구타’ 등에 대한 정신문제 유형에 대해 상담사례와 독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²⁵⁾ 황의백은 비록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정신문제 유형으로 ‘폭력적 비행’, ‘상습공갈’, ‘중죄 범소년’, ‘가출부랑아’를 소개하고 있고, 일반인의 정신문제 유형으로 ‘우울증’, ‘불안신경증’, ‘바기니즘’, ‘히스테리적 불안증후’, ‘비사회성’ 등에 대한 치료과정 및 독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²⁶⁾

이처럼 보다 다양한 정신문제 유형에 대한 독서치료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 6〉에서와 같이 발달 및 임상적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안을 분석하여 보면, 치료 기간은 짧게는 5회에서 많게는 42회까지 그 편차 심하게 나타났으며, 독서자료도 적게는 2권에서 많게는 34권까지(정보제공형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인 경우 제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용 독서자료는 도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만화,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독서자료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상황별 독서목록 : 아동·청소년편」²⁷⁾ 등에서 많이

20) B. Doll & C.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7).

- 발달과정 : 분노 터뜨리기/ 욕하기/ 두려움과 걱정/ 싸움/ 수줍음과 위축/방해하기/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행동들(과제를 끝마치지 않음, 불복종하기, 허락없이 수업 중에 말하기, 등교 거부증)/ 거짓말하기/ 말 더듬기
심리·사회적위기: 아동 학대/ 이혼 가정/ 외딴 가정/ 알코올 의존증 부모/죽음을 경험한 어린이 정신장애전반 적 발달장애(소아기 자폐증)/학습장애/ 행동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소아불안장애(이별불안장애, 과잉불안장애, 소아공포장애, 회피성장애)

21) 김진숙, 강진구,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개발 연구 IV(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가족(갈등/폭력/결손/재구성가정/학대/경제적문제), 학업/학교부적응(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등교거부), 비행(가출/폭력/절도/음주/흡연), 정신건강(우울/무기력/자해행위/틱), 대인관계(따돌림) 생활습관/태도(컴퓨터/인터넷 사용)

2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TR, (Washington, D.C. : APA, 2000).
정신지체, 품행장애, 분리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활동장애, 유아자폐증, 학습장애.
물질관련 장애(알콜, 아편),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증상, 반사회적 행동, 피병, 부부문제, 관계문제, 직업문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 등.

23) 독서치료연구학회 편, 독서치료 실제(서울: 학지사, 2003).

24)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유 연구회 편,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부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2).

25) 이영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서울: 흥성사, 2000).

26) 황의백, 독서요법(서울 : 범우사, 1996).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참고되어졌다. 향후 「상황별 독서목록 : 성인편」(2005년 발간 예정)이 발간되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안은 대체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추후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담당하게 될 독서치료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독서치료는 단 시일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독서자료로 구체적인 독서치료 지도안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독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표 6〉 발달 및 임상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분석(학위논문 및 학술지 중심)

구분	정신문제 유형	치료 기간(회)	독서 자료(권)	지도안 유/무
유· 아 동	왕따 당하는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칭찬을 병행한 ADHD 아동의 독서치료	20	13	유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15	19	유
	ADHD 학생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	12	2	유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10	2+활동	
	어린이 교화단 활성화	1년	4+성가	유
	초등학생의 창의성 향상	10	3	유
	읽기부진아	20	14	
	초등학교 영재의 자기지각과 사회적 지지수준	8	6	유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독서태도(초4,5)	21(12)	10	유
	자폐성 아동의 사회성 발달	42	16	유
	발표불안 아동의 학습태도 변화	10	4	유
	아동의 자아개념	20	19	유
	학습부진아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 향상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8	계획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시설아동: 우울, 수치심, 죄책감	10	8	유
	초등학생 '왕따'	8	9	유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12	10	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24	8	유
	유아의 창의성 및 자아개념	24	12	유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	10	8	유
	독서부진학생 치료			
	아동의 공격성 감소	8	5	유
	아동의 수줍음 감소	10	2+활동	
	시설아동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	20	16	유
	초등학생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ADHD) 감소	2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아동의 문제행동 치료	8	2	유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	1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	12	12	유
	학령기 아동을 위한 통합적 독서치료	20	34	계획안
	변화된 환경에 처한 아동의 적응:이사, 입·전학, 이민		8	

27) 한운옥 외, 상황별 독서목록 : 아동 청소년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9).

	문학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자아개념	12	12	유
	초등고학년의 독서부진아	10	10	유
	이혼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5	2	유
	분리불안으로 인한 학교 공포증 아동		4	
	이혼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김춘경)		10	
	전기물의 치료 독서에 의한 미래의 자아 역할상 형성	4개월	24	-
	인성치료		17	
	공격적인 아동의 치료적인 독서지도			
	고등학교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10		유
	집단 따돌림 학생의 인성치료	20	20	유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성취 동기	20	18	
	부적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인간관계			
청 소 년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	10	10	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통제성	10	11	유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8	7	유
	중학생의 자아정체성 신장	12	12	유
	청소년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기	7	7	계획안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 개념 향상	30	17	유
	非行靑少年의 自我概念 育成	13	5	유
	중년여성의 사회심리적 위기감	-	-	참여의향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70	
	'성인아이(Adult Child)' 문제		29	
	대학생의 '문제음주'		60	
성 인	역기능 장애 치유	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	10	10	유
	노인의 우울증 해소		20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변화	18	15	
	주부의 마음상함	12	16	계획안

IV. 요약 및 제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변하는 사회의 기류에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경제구도의 변화, 배금주의, 가치관 혼란과 인간 소외 등 인간성 상실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대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 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좋은 책 한 권은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에 독서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상처받은 자의 치유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의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서치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나아가 독서치료 연구자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독서치료 연구는 단행본 23권, 학위논문 60편, 학술잡지 기사 70편으로 총 153편으로

외국의 독서치료 관련 연구에 비하면 그 수적으로 아직 미비하지만 현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었다.

둘째,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47.7%), 그 다음이 교육학 분야(17.6%), 유아·아동학 분야(15.7%), 상담심리학 분야(9.2%) 순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 외 신학, 문학,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치료 대상자는 유·아동에 대한 독서치료 연구가 57.6%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그 다음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21.2%로 나타났다.

넷째, 독서치료 연구유형은 이론적 연구가 60.8%, 발달/예방적 연구가 34%, 임상/치료적 연구가 5.2%로 이론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발달/예방적,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정신문제 유형에 있어 중복 연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기간은 짧게는 5회에서 많게는 42회까지 그 편차 심하게 나타났으며, 독서자료도 적게는 2권에서 많게는 34권까지로(정보제공형 제외)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안은 대체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추후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담당하게 될 독서치료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도서관, 학교, 상담소, 병원, 교도소, 병영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연구 즉, 발달/예방적, 임상/치료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좀 더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신문제 유형으로 한 독서치료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 참여자의 정신문제 유형의 진단을 위해 각종 측정도구를 활용한 좀더 과학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겠다.

넷째, 독서치료 실시 전·후의 참여자의 심리·정서적인 상태 등 독서치료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서치료는 단 시일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치료 기간과 풍부한 독서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독서치료 활동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독서치료 지도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서치료 참여자의 독서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대상자별 상황별 독서치료용 자료목록 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독서자료 선정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일곱째, 도서관 유형별(공공, 학교, 대학, 전문(기업체), 병원, 교도소, 병영)로 적용할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모형(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